시민단체 '전두환 단죄상' 앞세우고 침묵시위

전두환 오늘 두번째 광주법정 출두

증거제시·증인신문 일정 논의
헬기사격 등 입장 밝힐지 주목
오월단체 사죄 촉구 퍼포먼스
경찰 '불상사 막기' 만반 태세

전두환(89)씨가 27일 광주 법정에 선다. 5·18 40주년을 앞둔 시기라는 점에서 5월 단체들을 중심으로 시민단체, 지역민들은 반성과 사죄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계획하고 경찰은 지난해와 같은 불상사를 막기 위해 초긴장 상태다.

◇"전두환씨 맞습니까", 27일 법정에=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지법 201호 법정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연다.

전씨는 지난해 3월 11일 피고인 신분으로 처음 법정에 선지 1년 만에 다시 광주 법정에 출두하게 됐다.

전씨측이 최근 부인인 이순자씨가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법정에 동석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한 만큼 이씨도 광주 법정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판부는 앞서 열린 공판준비기일(6일)에서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피고인이 틀림없는지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등에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며 "다음 기일에는 인정신문, 검사의 모두진술,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 측 입장을 듣고 증거조사를 갱신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일정을 고려하면 이날 재판에서는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본적), 주거, 직업을 물어서 출석한 자가 피고인임에 틀림없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인정신문, 검사의 전씨에 대한 기소 요지 설명, 피고인과 변호인측 입장 등을 듣는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가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양측에 세밀한 준비를 당부한 점을 감안하면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의 '1980년 5월 광주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검찰의 기소 요지를 뒷받침하는 증거 제시, 증인들에 대한 향후 증인신문, 변호인측 반박 증인들에 대한 신문 일정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증인신문을 위해 취소됐던 전씨의 재판 불출석 허가 요청도 다시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시민들, 법원 앞으로**=5월 단체들을 중심으로 지역민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부터 법원 앞으로 집결해 전씨를 맞을(?) 계획이다.

5월 유족회는 이날 법원을 빙 둘러 5월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의미의 상복과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피켓을 들어 전씨의 사죄와 반성을 촉구할 계획이다.

진보연대를 비롯한 지역 시민단체들은 재판이 열리기 전인 이날 낮 12시 15분부터 법원에 모여 전씨 법정 출두에 맞춰 집회·시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무릎을 꿇고 창살에 갇힌 전두환 조형물은 이날 오전부터 법원 정문 앞에 설치된다. 해당 조형물은 지난해 12월 신군부가 일으킨 12·12 군사반란 40년을 맞아 5·18단체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설치, 시민들이 발로 차거나 때리도록 했다. 5·18기념재단은 재판 이후에도 전씨 조형물을 옛 전남도청 앞 금남로 등에 계속 설치해 놓겠다는 입장이다.

청소년단체, 강제징집자연대, 5월 단체, 광주민예총 등은 재판 전후로 입장문을 내고 공연 등을 진행하며 전씨에 대한 처벌을 촉구한다. 경찰은 경찰 경호가 흐트러지면서 법원 일대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지난해 전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병력을 동원해 불상사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5월3일 재판에 넘겨졌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오늘 열릴 전두환(89)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재판 관련 방청권 추첨이 지난 24일 오전 광주 동구 지방법원 6층 대회의실(659호)에서 진행됐다. 법원측은 일반 방청석이 65석이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33석으로 제한했다. /김진수 기자 jeans@

전남 공립유치원 학부모회 설치 의무화

조례 개정안 상임위 심사 통과

전남 지역 공립유치원에도 학부모회 설치가 의무화된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김경자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 최근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단설·병설 공립 유치원도 의무적으로 학부모회를 설치하고, 사립유치원은 정관 및 규칙에 따라 학부모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유치원의 학부모도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유치원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김경자 의원은 "초·중·고교처럼 유치원도 학부모 자치기구인 학부모회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유치원과 학부모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유치원이 학교교육 체제로 위상을 확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학부모회가 교육 주체로서 공적 책임과 권한을 갖고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해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유치원 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조선대 이사회 회의 시민사회에 개방

전국 사립대학 사상 최초

조선대학교 이사회가 한국 사립대학 최초로 이사회 회의를 시민사회에 공개했다.

학교법인 조선대 이사회는 지난 23일 광주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관한 가운데 2020년 '제5차 이사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사회가 학교법인조선대 정관 개정(안)과 조선대 직제 규정 개정(안) 등 19건에 대한 심의·의결 과정을 참관했다.

이날 이사회 공개는 조선대 이사회를 지역사회에 개방함으로써 대학 경영의 투명성을 높임과 동시에 민립대학의 위상을 공고히 하자는 취지에서 시행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5·18기념재단의 박진우 연구실장과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이태윤 사무국장이 참관인으로 참여했다.

조선대는 최근 '공영형 사립대'로의 전환을 포함한 대학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대학의 취지를 살려 지역사회와 협력해 시민의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모색하고 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교육청 온라인 개학 맞춤형 학습영상 지속 제공

광주교육청이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개학이 이뤄짐에 따라 시 교육청 공식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학습 맞춤형 영상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2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2019년 말 개설한 광주시교육청 유튜브는 3월19일 '격정되는 대학입시 대비 전략'을 시작으로 온라인 학습에 필요한 영상 103개를 업로드 했다. 3월 23일부터 한 달 동안 채널 조회 수는 16만 1564회를 기록했고 구독자 수는 2526명이 증가했다.

시 교육청 유튜브 '콸콸콸 배움샘터'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경제수학, 생활과 과학, 여행 지리, 한자 등 다양한 과목들로 이뤄진 78개의 학습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똑똑 글자놀이, 체육수업 자료 등도 제공한다. 특히 가장 인기 있는 영상은 지난 8일에 업로드한 '필요해요 한문'으로 현재까지 조회 수는 1만 8661회를 기록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 동구, 재가 장애인에 '건강두드림 꾸러미'

광주 동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 시설 휴관이 길어짐에 따라 가정 돌봄에 의존하고 있는 보건소 등록 뇌병변 장애인에게 '건강 두드림 꾸러미'를 제공한다.

이번 사업은 비장애인에 비해 많은 활동 제한이 따르는 뇌병변 장애인들이 꾸준한 신체활동을 통해 재활공백을 최소화하고 우울감과 무력감 해소를 통한 심리적 안정 등 정신적·육체적 건강관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강 두드림 꾸러미'는 실내 건강체조 포스터와 마스크, 통증완화 파스, 치간 칫솔 등 뇌졸중 장애인의 건강유지를 위한 물품 6종으로 구성, 뇌병변 장애인과 주간재활프로그램 참여자 150여명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교사 정치단체 금지 위헌"

헌재 "정치적 자유 침해"

교사가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23일 현직 교사 9명이 국가공무원법 65조 1항 등이 "정치적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공무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경쟁률 껑충

광주 29대1·전남 11대1

광주와 전남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경쟁률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닷새동안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광주는 70명 모집에 2053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29.3대1, 전남은 299명 모집에 3304명이 접수해 평균 11.1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평균 보다 각각 55%와 21%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19'사태로 인한 최악의 고용 상황이 경쟁률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의 경우 직렬별로는 교육행정(일반) 35.6대 1, 교육행정(장애인) 12.5대 1, 교육행정(저소득) 26대 1, 전산 12.5대 1, 시설(일반토목) 29대1, 시설(건축) 9.5대1, 사서 15.3대 1 등이다.

필기시험은 6월13일에 실시하고, 시험장소는 6월1일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알림마당/시험공고)를 통해 공고된다.

지난해 평균 9.2대 1의 경쟁률을 보인 전남은 직렬별로 교육행정(일반) 10.7대 1, 교육행정(장애인) 2.7대 1, 교육행정(저소득) 4.7대 1, 사서 6.4대 1 등이다. 특성화고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술직 경력경쟁임용시험 경쟁률은 평균 10.7대 1을 보였으며, 특히 공업(일반전기) 직렬은 32대 1로 최고 경쟁률을 나타냈다.

필기시험은 6월13일 시행되고, 7월24일 면접 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는 8월3일 발표될 예정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3대 실명질환! 당뇨망막병증이란?

◆ 당뇨망막병증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으로 인해 시력에 가장 중요한 망막조직에 문제가 발생하는 병으로 성인 실명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해 혈관 주위 부종과 출혈이 발생하게 돼 시력저하가 일어나는 병입니다.

◆ 증상

당뇨망막병증은 초기, 중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으며 시력이 정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점차 심해져 말기가 되면 신생혈관에서 출혈이 생기면서 시력이 저하되고, 시야에 벌레나 먼지 같은 무언가가 떠다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거나 커튼을 친 것처럼 가려 보이는 증상, 광시증, 눈부심 등이 동반됩니다. 등이 동반됩니다.

◆ 종류

당뇨망막병증은 크게 비증식성과 증식성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비증식성은 망막의 혈관이 점점 약해지며 혈청이 새거나 혈관이 막히며 망막의 영양 공급이 끊겨 시력이 나빠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당뇨망막병증 환자 대부분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식성은 비정상적인 혈관들이 나타나 증식하고, 유리체 출혈을 일으키기도 하며, 섬유혈관막이 증식하면 망막을 잡아당겨 망막박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 치료

당뇨망막병증 치료는 진행시기와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초기에는 철저하게 혈당조절을 함으로써 당뇨망막병증을 억제하고, 여기에 망막혈관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손상을 막기 위해 꾸준히 망막영양제 혹은 망막혈액순환 개선제 등을 복용하면서 주기적으로 경과를 관찰합니다. 당뇨망막병증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나 주사치료, 초자체절제술 및 유리체절제술 등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신세계안과 1566-9988